

# 화재현장 인명 구조율 5년새 2.5배 ↑

## 年평균 3만509명 소방관에 의해 목숨 건져 인명구조율 평균 0.7명...소방 대응역량 강화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에 의해 인명구조된 비율이 5년 사이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소방청에 따르면 2014~2018년 5년 간 화재 현장에서 구조된 인원은 총 15만543명(대피유도 14만 982명·직접구조 1만611명)이다.

연간 평균 3만509명이 소방관에 의해 목숨을 구한 셈이다.

연도별로는 2014년 1만8735명, 2015년 2만4106명, 2016년 3만3327명, 2017년 3만5132명, 2018년 4만 1243명으로 연평균 22.4%씩 증가했다.

구조 인원을 화재 건수로 나눈

비율인 '인명 구조율'은 연평균 0.7명이었다. 화재 1건당 0.7명을 구조한 의미이다. 인명 구조율은 2014년만 하더라도 0.4명에 그쳤지만 2015년 0.5명으로 늘더니 2016~2017년 2년 연속 0.8명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1.0명이 됐다. 5년 새 2.5배나 커진 것이다.

최병일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은 "소방장비가 보강된데다 화재 발생

초기부터 우세한 소방력을 투입하는 '최고수위 우선대응 원칙'을 이행한 결과"라면서 "화재 현장에 신속히 도착하기 위한 국민들의 소방차 길터주기 협조도 한 몫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4일 강원 동해안 산불과 같은 달 30일 경기 군포 페인트공장 화재 당시 '대응 3단계'를 발령해 중앙과 지방이 협력 대응한 것이 최

고수위 우선대응 원칙 적용의 대표적 사례다.

소방차 길터주기로 인해 특·광역시와 경기도의 화재신고 접수 후 7분 내 현장 도착률도 2016년 71.5%에서 지난해 75.1%로 높아졌다.

최 국장은 "화재 현장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소방력의 신속한 현장 도착과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인력이 부족한 도 지역에 소방인력을 확충하고 소방환경에 맞는 장비를 적체적소 배치해 화재 피해를 줄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시

## 파키스탄서 오염 주사기에 400명 에이즈 감염

파키스탄 남부 지역에서 한 의사가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 바이러스에 오염된 주사기를 재사용하는 바람에 400명이 에이즈에 걸리는 일이 벌어졌다.

11일 미국의소리방송(VOA)은 파키스탄과 유엔 보건 당국이 파키스탄 남부 지역에서 에이즈 감염 사태를 조사한 결과, 400명이 에이즈 확진 진단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특히 어린이 감염자가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고, 거의 절반이 5세 미만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했다.

앞서 파키스탄 현지 언론에 따르면 경찰은 약 2주 전 신드주 라르카나 지역에서 약 90명의 환자들에게 HIV를 감염시킨 혐의로 의사 한명을 긴급 체포했다.

이 의사는 주사기 한 개로 어린이들을 치료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 역시 HIV에 감염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보건 당국은 약 900명의 시립을 상대로 HIV 감염 여부를 검사하고 추가 감염자를 확인했던 것이다.

인구 4800만명의 신드주는 파키스탄에서 에이즈 발병률이 매우 높은 주(州)로 알려졌다. 파키스탄 HIV 감염자 15만명 중 43%인 6만4500명이 신드주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파키스탄 5성급 호텔에 무장괴한들 난입

파키스탄 서남부 발루치스탄주 항구도시 파다르에 있는 5성급 호텔에 무장괴한들이 난입해 최소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파다르는 중국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요충지 중 한 곳으로 이번 습격사건을 일으킨 무장단체는 "중국에 대한 공격을 더 감행하겠다"고 밝혔다.

AP통신, BBC 등에 따르면, 11일 오후 4시 50분쯤(현지시간) 파키스탄 파다르의 5성급 호텔 펄 컨티넨탈호텔에 4명의 무장괴한들이 난입을 시도하며 약 1시간동안 호텔 경비원 및 군인들과 총격전을 벌였다. 괴한들은 총은 물론 폭탄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전으로 경비원 1명이 사망하고 무장괴한 4명 모두 사살됐다.

군 당국은 이날 성명에서 군이 무장괴한들의 습격을 진압했으며, 투숙객과 직원들은 모두 안전하게 대피했다고 밝혔다.

현지 무장조직 발루치 해방군 측은 이번 습격을 자신들이 벌였다고 주장하고 대원들의 사진도 공개했다. 또 트위터를 통해 "중국과 파키스탄을 더 공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발루치스탄 해방군이 지난해 파키스탄 카라치에서도 중국 영사관을 공격하는 등 최근들어 중국을 겨냥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이 파키스탄의 지원을 철회한다는 이유에서다.

펄 컨티넨탈호텔은 파다르 항구 인근에 있는 호텔로 파키스탄과 중국의 합작으로 세워졌다. 호텔 측은 습격이 이슬람 성일인 라미다탄 때문에 투숙객이 없었고, 직원들도 최소한한 근무 중이었다고 밝혔다.

## 여아 실종신고 美 남성 살인 혐의로 체포

텍사스 휴스턴에서 4살짜리 여아가 실종되었다고 경찰에 신고한 남성이 11일(현지시간) 아파트에서 아이의 혈흔이 발견되면서 경찰에 체포되었다고 현지 경찰이 발표했다.

대리인 벤스리는 이 남성은 휴스턴 남서쪽 35km 거리에 있는 슈가 랜드의 형의 집에서 별 이상 없이 체포되었다고 휴스턴 경찰은 밝혔다. 그의 혐의는 증거 조작 및 훼손이다.

벤스는 어떤 픽업 트럭을 탄 남자들이 자기와 4살짜리 딸 엘리야 데이비스, 2살 짜리 아들을 납치했다가 자기 부지만 풀어주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하지만 처음 그를 심문한 슈가 랜드 경찰은 그의 진술이 계속 변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휴스턴 경찰도 11일 그의 진술 내용 일부가 허위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벤스는 자기 승용차인 은색 낫산 자동차가 납치되었다고 말했지만 감시 카메라 확인 결과 그 차는 나중에 한 병원에 앞에 벤스를 내려주었고 그 곳에서 그는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휴스턴 경찰은 그의 아파트에서 엘리야의 혈흔이 발견되었으며 인근 CCTV카메라에는 그가 아파트에서 커다란 세탁물 바구니를 들고 나가는 것이 녹화되었고 그 바구니는 나중에 낫산 차 트렁크에서 가스 통과 함께 발견되었다.

엘리야의 생모 브리타니 보웬스는 인권운동가들과 함께 아파트 앞에서 이 사실을 증언했다.

인권단체의 지원자는 벤스가 그 동안 이들 모녀를 괴롭혀 왔으며 보웬스는 그가 고의로 아이를 해친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시



대형 모래조각작품 제작 12일 오후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대형 모래조각작품이 제작되고 있다. 해운대구는 오는 24~27일 제15회 해운대 모래축제'를 개최한다.

## 정부, 본인서명확인서·인감증명 수수료 차등화 추진

정부가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본인서명확인서)와 인감증명서의 발급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하지만 과거 두 차례나 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절반으로 깎고도 발급률이 눈에 띄게 늘지 않았던 터라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행정안전부는 수수료 차등화를 골자로 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우리의 행정 제도에 뿌리깊게 박혀있는 일제의 잔재인 인감증명 사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전 세계적으로 인감증명을 사용하지 않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 3개국 뿐이다.

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2012년 12월 도입 당시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수고가 줄어들고, 주민은 인감도장을 만들어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사진 등록한 뒤 보관해야 하는 불편이 없앨 수 있어 빠른 시일내 활성화될 것이라 예상했었다.

하지만 인감증명 제도가 100년 넘게 시행돼 익숙해진터라 본인서명확인서 발급률이 매우 저조했다.

급기야 정부는 지난 2013년 본인서명확인서 발급률을 높이기 위해 201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한 통당 600원인 발급 수수료를 300원으로 낮췄고 시행령을 한 차례 더 개정해 인하 시한을 2017년까지 2년 연장했다.

그러나 이 기간 인감증명서 대비 본인서명확인서 발급률은 3.0%에서

5%대로 오르는 데 그쳤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5.47%다. 지자체별 발급률은 최저 2.76%(서울 서초구)에서 최고 23.63%(부산 연제구)로 편차도 크다.

이에 정부는 본인서명확인서와 인감증명서의 발급 수수료를 차등화해 본인서명확인서 발급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는 한 통당 600원으로 동일하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발급 수수료를 모두 인상되며, 본인서명확인서의 인상 폭을 인감증명서보다 낮게 책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국회 통과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시행령 개정 사안인 만큼 정부 결론만 나면 곧바로 시행이 가능하다.

뉴스시

## 전남경찰, 악성폭력 단속 223명 검거·28명 구속

전남 경찰이 병원 응급실 난동, 주취소란 등 생활주변 악성폭력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여 2달여동안 223명을 검거 28명을 구속했다.

전남경찰청은 지난 3월4일부터 5월2일까지 60일간 생활주변 악성폭력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였다.

주요 단속대상은 '의료현장 폭력' '대중교통 내 폭력' '대학가 폭력' '체육계(지도자·선수) 폭력' '생계참해 갈취폭력' '주취폭력' 등이다.

단속 결과 지난달 23일 해남의 한 병원에서 의사를 주먹으로 때린 남성이 붙잡혔으며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상습 무임승차한 괴뢰자 검거돼 구속됐다.

또 여수의 섬마을에서 흥기로 상인을 위협하는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괴뢰자가 구속됐다.

이처럼 집중단속기간 총 223명이 붙잡혔으며 이 중 28명이 구속됐다.

세부적으로는 갈취·주취 폭력이 18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중교통 위협 28명, 의료현장 12명 순이다.

연령대는 40·50대의 범행비율이 64.1%로 가장 높았으며 범행유형은 폭행 등 58.2%, 무전취식 14.3%, 업무방해 12.1% 순이다.

범행은 주로 민취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직업은 상인 등이 84.3%를 차지했으며 비율은 남성 52.5% 여성 47.5%로 나타났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에 붙잡힌 괴뢰자 대부분은 상습적이었으며 자신의 행위에 대해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상습성·여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하는 등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정환 기자

#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어는요... 자폐치료쪽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옵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일반 건강검진

생애건강검진

구강검진

암검진

영유아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검진기관이 혼잡하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 국가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 중 자폐검사할 때, 자폐치료 중인 민력어

보건복지부 | h-well 국민건강보험